

## 필요와 변화의 시기의 기술 포용

존 발디노, OFS

사회 거리두기, 자택 격리 지시가 내려진 지금 형제회에서 자주 만나고 본당과 사회 활동에 참석하는 데 익숙한 이들에게 사람들로 부터 격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재속 프란치스칸에게 형제자매들과의 접촉을 피해야하는 지금의 이 상황은 쉽지 않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의 삶은 회개하는 형제자매의 수도 생활과 비슷하지만, 재속 프란치스칸들의 삶은 봉쇄 수도원 밖에 있습니다.

코비드 19로 인한 극적인 대책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상황은 좋지 않습니다. 형제회는 이러한 현 위기 때문에 모임과 활동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줌, 페이스 타임, 구글 행아웃, 다자 통화 등 전자 통신을 사용하여 직접 만나는 만큼 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 매체는 재속 프란치스칸과 모든 믿은 이들의 복음전도를 가능케 합니다. 일정, 양성 자료, 기도 등을 웹을 통해 나눌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러한 기술을 멀리 합니다. 모르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 본능인데, 전자매체에 관한 두려움은 더 큰 듯합니다. 재속 프란치스칸이 새로운 통신기술을 두려워하게 되면 곧 뒤쳐지게 됩니다. 웹, 사회매체, 통신 기술을 어느 단체, 특히 복음을 알리는 단체의 성공에 필수입니다. 얼굴을 맞댈수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방법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러한 두려움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전자매체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뒤쳐지지 않으려면 이러한 소통 방법에 적응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 교회는 통신 기술을 수용해 왔습니다. 두루마리 대신 필사본으로 1802년 미국 첫 가톨릭 신문을 출판한 가브리엘 리처드 신부님에 이어 제 2차 대전 중 폴란드와 일본에서 잡지와 라디오를 통해 나치주의와 싸웠던 막시밀리아노 꼴베 성인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꼴베 성인은 “예수님이나 프란치스코 성인이 오늘날 사셨다면 근대 통신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소통하셨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메일은 1970년대에, 영상통화는 1980년대에 시작되었음을 고려하면, 최신 기술을 그렇게 혁신적이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더 새롭고 좋은 기계를 사용하여 30년전보다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마라”라고, 글라라 성녀는 “두려움 없이 나아가라”라 하셨습니다. 재속 프란치스코회 총봉사자 티보 카우스는 부활 메시지에서 “현대 기계과 연장 사용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화, 이메일, 문자, 영상통화로 나의 감정, 경험을 서로 나눕시다”라 하였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기술화 된 사회를 인정하게 되면 사용할 수 도구가 많아집니다. 형제회 모임과 공동 기도를 줌이나 구글 행아웃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통화로 형제들이 서로 보면서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직접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만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타 형제회 웹을 나눌 수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하여 단위, 지구, 국가 형제회 양성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경험치 못한 초유의 사태인 지금, 사람이 만든 기술은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습니다.